

타이어 輸出現況과 振興方案

經濟通信 記者

池 益 祥

1. 序 論

世界的인 經濟成長 趨勢에 따라 先進國의 所得增大 와 開發途上 國家들의 社會間接資本 確保를 위한 道路交通網의 擴大는 菲廉적으로 自動車의 補給을 促進 케했으며 그 部品인 「타이어 · 튜우브」의 需要是 擴大 一路를 달려왔다. 「스피드」時代에서 運搬手段으로서 차동차가 脚光을 받고 있는 이상 「타이어 · 튜우브」의 需要是 계속 增加할 것이 예상되는 한편 그것이 消耗性이 높은 商品이라는 點으로 봐 앞으로 有望한 輸出商品으로서 기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境遇 타이어의 主要原資材로 되고 있는 天然고무, 合成고무와 其他化工藥品 等을 거의 輸入에 依存하고 있을 뿐 아니라 先進國에 비해 落後된 製造施設 등은 同品에 대한 앞으로 輸出展望에 대한 樂觀을 不許케 하고 있다.

2. 타이어 輸出動向

우리나라의 「타이어 · 튜우브」가 처음 輸出된 것은 1962년에 「泰國」에 42,000 \$과 「파키스탄」에 50,000 \$로 不過 92,000 \$ 상당의 2,000本이 輸出되 되었던 것이다. 그후 「타이어」輸出은 계속 增大하여 65年에 들어서 부터 輸出은 本格化하여 그 輸出額로 98萬 \$로大幅 증가를 시현했다. 한편 輸出市場面에서도 「泰國」, 「파키스탄」등 東南亞市場에 국한 하던 것이 美國, 이란, 요르단, 영국 등 美洲와 中東地域으로 擴大되어 市場이 多邊化되는 증조를 보였다. 66年에는 1,195, 175 \$, 67年에는 1,358, 207 \$ 그리고 68年에는 1,217, 834 \$에 이르러 62年度에 比해 20倍의 높은 輸出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는 美國, 日本, 英國, 블란서, 서독 등 先進國의 「타이어 · 튜우브」生產과 輸出量은 最近 活發한 增加를 보고 있는 테다 泰國, 印度, 터기 등 東南亞 諸國의 타이어 튜우브의 自給度도 역시 매우 上昇하였으며, 아프리카 및 中南諸國의 타이어工業도 꾸준히 만한 發展을 보였다. 이러한 타이어工業의 世界的인 發展相에도 不拘하고 世界 多大數國家들은 國內生產만으로 國內需要를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消費性增大와 工業化 및 產業用 車輛增

로 인한 自動車需要의 增加는 「타이어 · 튜우브」의 需要是와 繼續되며 同品의 輸入需要는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傾向에 따라 최근 몇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타이어 튜우브」의 輸出도 날로 成長하여 왔던 것이다.

또한, 泰國에서만 하드래도 그 比重은 壓迫적이었다. 우리나라의 泰國에 대한 타이어 輸出은 65年 總輸出額 98萬달라중 71萬 9千달라, 66年에는 1百 38萬 2千弗 중 95萬\$에 이르고 있어 우리 나라 「타이어 · 튜우브」年間 輸出額의 70~7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泰國은 우리나라의 타이어 輸出의 황금 市場이 있었다. 이러한 過去 泰國의 타이어 輸入傾向은 泰國의 國內業界로 하여 新市場의 開拓과 泰國內 타이어工場建設을 促進하였으며 이 결과 68年 그 輸出實績은大幅 減少하여 겨우 44萬달라로 67年 總輸出額 12萬\$ 중 27%를 下迴하고 있었다. 이러한 對泰國 타이어 輸出不振의 主原因은前述한 것 이외도 최근에 와서 日本業者들의 「競爭」으로 인해 泰國國內 需要量의 60%를 供給하고 있는 自動車 타이어工場인 [Firestone]社가 國內 出荷價格을 대폭 下落시킨데 큰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밖에는 泰國의 「타이어」輸出의 展望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은 泰國政府의 「タイヤ制」實施와 日本의 「Bridge-stone」社와 泰國業界와 合作投資로 「Thai Japan Tire」社를 設立 年間 25萬本 生產을 目標로 今年 1月 22日 同工場이 가동함으로써 우리의 輸出市場은 그 어느 때 보다 경쟁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對泰國의 「타이어 · 튜우브」輸出量 減少와는 대조적으로 近來 우리나라의 輸出市場도 次第 中近東, 아프리카 地域으로 擴大되고 있어 輸出市場은 多域化되었다. 자마이카, 이란 등 中近東과 아프리카 地域의 68年 輸出額은 60萬\$弗로 인하여 全體輸出實績의 60%를 占하고 있어 同地域에 대한 輸出增大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過去 우리나라 타이어 튜우브의 輸出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泰國市場이 좁혀지고 있을 뿐더러 치열한 國際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는 過去와 같은 單一市場에 대한 集中輸出攻勢를 지양해야 할 뿐 아니라 新規市場開拓에 대한 적극적 宣傳活動이 要請되고 있다. 특히 過去實績으로 봐 극히 미비했으나

막대한 양의 「타이어 투우브」를 國際入札에 의하여 輸入하고 있는 越南市場에 침투를 시도하는 것은 어찌면 우리나라 「타이어·튜우브」輸出의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한편 輸出增大的 里程表가 될 것이다. 올해 타이어 輸出의 累計는 11月末 現在 1百30萬弗로 今年度 輸出目標 2百20萬弗에 비해 54%의 아주 저조한 實績을 보이고 있어 今年度 輸出目標 達成이 사실상 難重視되고 있다.

3. 輸出振興方案

이와 같이 「타이어」輸出이 急降下한 것은 물론 海外시장의 평협성, 輸出採算性缺如, 輸出競爭力鈍化, 宣傳活動等의 취약성에서 오는 諸般 여건이 겹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國內自動車業界가 마이카時代의 到來을 의지면서 취한 活發한 自動車供給에 따라 無限臺로增加하는 內需 「타이어」의 需要가 어느때 보다 擴大를 보이고 있는 페다 「타이어」의 輸出採算性惡化는 「타이어」業界의 強力한 輸出意慾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點이다 한 企業의 永續的發展을 위해 輸出은 한 企業의 必須過程인데 이와 같이 惡化된 輸出採算性은 業者들로 하여금 외국차관업체라는 운명의 立場에서 輸出을 試圖케 하려고 하니 輸出은 깊은 進展을 보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輸出採算性的 確保는 우리나라 「타이어」工業의 發展의 관건이 되고 있다는 點에서 볼 때合理的的 輸出間接補償制度 채택이 하루속히 要求되고 있다. 政府가 오는 70年부터 施行하려고 하는 輸入링크品目으로서 「고무」를 「타이어」輸出業者에게만 그 實績에 따라 「Share」를 策定, 그 輸入權을 政策의 으로 뒷받침 할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餘他輸出商品의 間接支援策에 비하면 오히려 폐듯은 감이 들고 있다.

둘째로 「타이어」의 原資材로 되어 있는 合成고무, 天然고무, 其他 化工藥品 등은 거의 輸入에 依存하기 때문에 輸出경쟁력은 越等히 鈍化되고 있다. 비근한 예로 인접 日本에 비해도 輸出價格가 현저히 높아 벌써 價格面에서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다는 事實에 비추어 그 對策은 時急하다.

우리 나라의 立地的條件으로 보아 天然고무의 生產不能은 탓할 수 없는 일이지만 「타이어」製造에 없어서는 안될 合成고무의 生產은 自然的 또는 地理的條件을 超越하여 능히 解決할수 있는데도 아직 까지도 「合成고무」를 國產化하지 못했다는 事實은 「타이어」輸出競爭力を 鈍化시키는 絶對的要素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나라 「타이어」工業이 系列化를 이룩하지 못했다는 증좌이기도 하다. 外國의 경우 「타이어」製造에 있어 天然고무 보다 合成고무 혼합 비율을 보다

높이 구성함으로써 「타이어」의 製造原價를 크게 削下시키고 있다는 點을 감안 할 때 合成고무의 國產化는 火急을 要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타이어」主原料로 되고 있는 「나이론 코오드」의 國產品價格이 日本產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點이다. 日本產 나이론 코오드는 kg當 6百60 원인데 質도 良質로서 評價되고 있는데 韓國產은 kg當 1千30 원이라는 越等히 높은 價格으로 策定되어 있을 뿐 아니라 其他化工藥品의 높은 관세율은 「타이어」의 코스트 업을 促進시키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當局의 이에 대한 성의 있는 對策이 時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로 生產施設의 침예화다. 高度化된 生產技術은 原價切下와 直結되며 輸出競爭力強化와 一致하기 때문에 이 問題는 重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타이어」生Production設施이 계속 外國車廠에 의한 그施設을 擴充, 自動化 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가장 經濟的인 單位이며 침예화된 生產設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접 日本施設에 比하여 時間當 生產量은 越等히 韓國이 下廻하고 있다는 點과 그 製造技術面에서도 熟練된 天然고무와 合成고무의 混合技術은 「타이어」의 製造原價를 크게 下落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이어製造에 있어 合成고무의 技術的配合은 耐久性과 耐熱性이 높은 製品을 生產하여 製品의 越等히 高級化하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經濟的規模의 生產施設과 向上된 製造技術은 아주 적절한 Cost-down을 가져올 수 있어 輸出競爭에 있어 아주 유리한 위치를 확보케 한다.

네째로 輸出市場의 多域化이며 그 深化가 要請되고 있다. 67年度까지 우리나라 「타이어」輸出은 泰國市場一邊到였는데 그후 泰國市場이 크게 침체하자 우리나라의 「타이어」輸出伸張은 相對적으로 감소를 나타내고目標額達成 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는 點이다.

우리가 이러한 經驗에 비추어 보아 아직도 「타이어」의 自給化가 이룩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와, 經濟開發에 總力を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尤其한 石油輸入으로 재원이 豐富한 中近東市場을 擴大함으로서 特定地域中心의 輸出傾向을 지양하고 輸出市場의 多變化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이미 획득된 우리의 기존輸出市場이라 하더라도 그 輸出實績을 보면 去來의 初期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中近東國家들의 「타이어」各國別 輸入實績을 보면 우리나라 輸出은 그 Share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製品을 高級化 내지 다양화하고, 繼續적인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對外的인 宣傳活動強化와 同地域에 대한 市場침투의 深化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D/A 베이스에 의한 輸出장려다. 어느 품목에서나 마찬가지로 「타이어」輸出에 있어서도 先進國의 輸出攻勢는 L/C Base에 의한것 보다 D/A 輸出을 애용하고 있다. 특히 日本은 中近東 및 아프리카 地域에 品質이나 價格面에서도 韓國產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주고 있어 그들의 輸出量은 날로 增大시키고 있으나 韓國은 아직껏 L/C Base의 輸出만을 고집하고 있어 輸出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輸出歷史도 日淺하면서一方的으로 L/C Base 方式의 輸出을 고집하는 것은 현명한 輸出業者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點을 깊이 깨닫고 現行 우리나라에 實施되고 있는 輸出保驗制度를 널리 活用 D/A Base의 輸出을 增大시켜야 할 것이다. (연보수출)

여섯째로 越南軍納의 개척 可能性을 打診하고 越南市場의 確保다. 越南은 戰爭으로 말미암아 매년 대대한 量의 「타이어」를 消費하고 있으나 그 大部分이 入札形式에 의하여 美國에서 輸入되고 있다. 그러나 韓國軍이 越南에 派遣되어 있는 이상 韓國軍이 使用하는 量만이라도 우리가 納品할 수 있도록 政府가 外交經路를 通한 적극적 政府交涉이 要請되고 있다. 또한 越南民需用 「타이어」의 入札資格은 美國에 限定되어 있는

데 가끔 AID受援國家 全體에 入札을 許用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래도 비교적 積得率이 높은 大型「타이어」의 경우에는 大部分 入札資格이 美國에 限定되어 있으므로 政府는 이러한 制限조치를 越南政府 및 關係當局과 접촉함으로써 적극적인 對越輸出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만일 對越輸出이 增加한다면 韓國의 「타이어」輸出은 크게 好轉 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일곱째로 製品의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은 한製品의 한 지엽적인 問題이면서도 販賣要因의 결정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地域의 特殊性을 감안하고 流行을前提로 한 「디자인」 아니면 인기를 끌수 없는 點을 고려 항상 現地의 流行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가를 주시하여 이에 따르는 「디자인」開發에 힘써야 한다. 항상 世界도처에서 強力한 輸出國으로 등장하고 있는 日本產 「타이어」가 「디자인」면에서나 品質面에서 우리 「타이어」보다 好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 우리業界는 「디자인」개발에 관한 배전의 노력이 要請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問題點을 解決하면서 적극적인 市場개척 활동을 展開한다면 우리나라의 「타이어」輸出市場은 매우 밝다고 하겠다.



◇ 投稿歡迎 ◇

1. 内 容
 - ① 「타이어·고무」誌 全般에 關한 意見 또는 提議
 - ② 타이어 및 고무工業에 關한 研究論文
 - ③ 타이어 및 고무工業에 關한 外國書籍翻譯
 - ④ 其 他

2. 보낼 곳 서울特別市 鐘路區 新門路 1가 170番地(一洋빌딩 202號)

社團法人 韓國타이어 工業協會

* 採擇된 原稿에 對해서는 所定의 稿料를 드립니다

